

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이직경험에 관한 연구

이 은 주(인하대학교 박사과정) · 양 성 은(인하대학교 교수)

보육시설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는 보육교사이며, 보육교사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그 직장에 근속하는 것이 중요하다.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은 보육시설의 경제적, 행정적, 심리적 비용 부담을 초래하며, 교사의 수업몰입도 및 준비도를 낮추고, 교사-아동간의 안정적 애착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. 이에,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보육교사의 이직에 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. 특히 보육시설의 주체인 교사와 시설장을 모두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써 이직에 대한 양측의 인식을 각기 조명하였다.

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경기권에 소재한 보육시설에서 이직을 경험한 보육교사10명과 시설장11명이다. 자료 수집은 2011년 7월 한 달간 연구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졌다. 자료 수집을 위해 교사 2그룹과 시설장 2그룹을 구성하고, 평균 2시간이 소요된 포커스 그룹면접(focus group interview)을 실시하였다. 수집된 자료는 포커스그룹면접 분석법에 따라 그룹내분석(group level analysis)과 그룹간분석(across-group comparison)으로 실시되었다.

본 연구의 결과는 이직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과 시설장의 경험으로 나눌 수 있다. 먼저, 이직을 경험한 보육교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첫째, 보육교사들은 자신의 직업을 “평생직업”인 동시에 “구조적 희생양”으로 인식하는 양가적 반응을 나타냈다. 둘째, 보육교사의 이직 주원인은 교사-시설장, 교사-부모, 교사-교사 간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. 셋째, 보육교사들은 협소한 구직시장과 지역내 시설장들 간의 정보공유로 인해 이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. 넷째, 이직을 결정할 때 가장 주요한 요인은 급여수준으로 나타났다. 한편, 시설장들은 이직을 결심한 교사에게 “1년 간의 교육과정을 완수도록 설득”한다. 시설장들은 교사가 이직한 후 신규교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으며, 새로 채용된 교사에게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. 하지만, 시설장들도 보육사의 이직 원인이 교사 개인의 특성보다는 낮은 보수, 과도한 업무량,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라는 점을 공감했다.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이직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제적, 물리적, 심리적으로 적절한 보육근무 환경을 조성하고,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한다.